

“반도체 경쟁력은 사람...기업 맞춤형 교육시스템 구축”

광주특별시 반도체 산업 인재양성 협력회의

지자체·교육청·대학, 미래형 인재 양성 청사진 제시
전남대, 2030년까지 산·학·연 선순환 체계 완성 목표
교육청, 정주유도시스템 구축 등 4대 핵심과제 추진

“반도체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서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과제로 ‘인재 양성’이 제시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대학교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 수요에 맞춘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 정주 기반 구축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최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본부 대학의실에서 교육부와 대학, 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산업 인재양성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

성에 대응해 지역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일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에 나선 정은승 반도체전략위원회 위원장은 기업이 요구하는 반도체 인재상을 제시하며 기술력 못지않게 태도와 윤리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핵심 인재는 태도 (Attitude)와 열정 (Passion)을 갖추고 새로운 일에 즐겁게 도전하며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는 수천 개의 공정을 거치는 ‘양심 산업’”이라며 “공정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했을 때 이를 숨기지 않고 공유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가운데)이 최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인재양성 협력회의’에 참석해 김대중 교육감, 대학 총장, 반도체 전문가 등과 회의를 마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하는 책임감과 약속을 지키는 윤리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재 양성 방향에 대해서는 “서남권은 연구개발(R&D) 시설보다 생산시설이 먼저 들어서는 만큼 당장 필요한 인력은 공정개발과 생산·제조, 경영 분야”라며 “이들 분야 중심의 교육과 인력 양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물리·화학·전자공학·통계 등 이공계 기초교육을 강화해 산업 현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상완 전남대학교 교수는 ‘대학의 역할과 인재양성 전략’ 발표를 통해 대학 간 역할 분담과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소개했다.
류 교수는 “전남대, 광주과학기술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각자의 강점을 살려 최상위 연구인재와 공정·소부장 엔지니어, 장비운용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며 “2030년까지 기업수요형 공동 커리큘

럼과 개방형 반도체 학사 운영, 수준별 특화인재 양성을 통해 산학연 선순환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대는 첨단반도체학과와 미래에너지학과를 신설하고 삼성전자 계약학과(학·석사 통합과정)를 추진하고 있다”며 “등록금 전액 지원과 인턴십 등을 통해 우수 인재가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반도체 인력 양성 거점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조기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장학관은 ‘AI·반도체 미래인재양성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지역에서 태어난 학생이 지역에서 교육받고 취업·정착하는 ‘교육 지산 지소’ 실현 구상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연구공학 인재 집중 육성 △실무형 산업기술 인재 양성 △지역 정주 유도 시스템 구축 △지산학 협력 거버넌스 신설 등 4대 핵심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충청 김민석·부울경 정청래...민주 당대표 경선 ‘박빙’

0.44%p·2.80%p 차...최고위원 당선권 친명 3·친청 2명
권리당원 많은 15일 호남·16일 수도권서 승부 갈릴듯

더불어민주당이 당 대표를 뽑는 첫 번째 주말 대회전에서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가 한 차례씩 승리를 나눠 가졌다.
민주당은 8·17 전당대회 첫 일일인 지난 1일 대전·충남·세종·충북과 2일 부산·울산·경남 순회경선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결과 충청권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45.06%로, 부·울·경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46.65%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김민석·정청래 두 후보의 표차는 충청권에서 0.44%p 차로, 부·울·경에서는 2.80%p차였다.
송영길 후보는 충청권에서 10.34%, 부·울·경에서 9.50%였다.
같은 권역에서도 각 지역별로 선두 자리가 엇갈렸다.
부산과 경남에서 정 후보가 선두(48.76%, 46.08%)였고, 울산에서는 김 후보가 1위(46.32%)였다. 충청권에서는 충남과 충북에서 김 후보가 이겼고(45.65%, 47.39%), 대전과 세종에서는 정 후보가 선두(48.23%, 50.28%)였다.
권리당원 표심이 처음 공개되는 주말 대회전은 경선 판세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여 당 안팎의 관심을 모았다.
특히 충청권은 정 후보의 고향이 충남

금산이라 정 후보가 우세할 것이라는 전망과는 달리 김 후보가 간발의 차로 이겨 기선 제압에 성공한 반면, 부·울·경에서는 김 후보가 충청권의 박빙 우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정 후보에 선두를 내어줬다.
이에 따라 이번 전대 승부의 분수령은 권리당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호남과 수도권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
8명이 출마한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최민희 후보가 부·울·경에서 22.87%를 득표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박선원(16.04%), 한민수(14.87%), 서미화(13.84%), 김용(12.25%) 후보 순으로 당선권인 5위 안에 들었다. 이성윤(11.86%), 임미애(5.35%), 김영호(2.92%) 후보는 6~8위였다.
앞서 충청권에서도 최 후보가 22.34%로 1위였고, 박선원(16.70%)·한민수(14.13%)·서미화(13.61%)·김용(12.54%) 후보 순이었다. 이어 이성윤(10.91%)·임미애(6.05%)·김영호(3.69%) 후보가 뒤를 이었다.
당선권 안에 든 후보를 계파별로 보면 친명(친이재명)계는 3명(박선원·서미화·김용)·친청(친정청래)계는 2명(최민희·한민수)이다.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가운데) 당 대표 후보가 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9~30일 진행된 부산·울산·경남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의 투표율은 부산 49.52%, 경남 39.57%, 울산 39.37%라고 밝혔다. 충청권 권리당원은 라인 투표율은 세종이 41.42%로 가장 높았고, 대전 35.97%, 충북 31.02%, 충남 29.63% 순이었다.
이날 울산 합동연설회에서 김 후보는 “당심이 조적을 이겼다. 준비된 기득권과 조직, 상대 지역 연고에서 시작됐던 불리한 할, 그 모든 것을 당원의 힘으로 이겨냈다”며 “당원과 의원을 갈라치는 이른바 ‘당심·의심 프레임’은 이제 끝나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 후보는 김 후보와 충청권에서 0.44%p 차로 접전을 벌인 점을 언급하며

“거의 모든 언론에서 김민석을 지지했고, 거의 모든 여론조사와 방송 패널들이 김민석이 이긴다고 했다”며 “국회의원들이 몰려다니며 전화방을 만들어 전화하고 했는데도 0.4%p 졌다면 제가 이긴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는 “네거티브하지 않겠다”는 정 후보의 발언에 대해 “우리들끼리의 네거티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는 사람을 방어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유시민 작가의 저주에 대해 왜 침묵하냐”라고 비판했다.
오는 8일에는 제주·인천, 9일 대구·경북·강원, 15일 전남·광주·전북, 16일 경기·서울 순회경선이 차례로 열린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재명 정부 위해 김민석 전 총리를 대표로”

종교계·시민단체 등 지지선언...오늘 DJ센터서 결의대회

오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선거 열기가 뜨거워지는 가운데 전남·광주 전역에서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당 대표 선출을 지지하는 각계 각층의 릴레이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김민석 후보 승리를 위한 전남광주총합 선거대책본부’(본부장 신정훈)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지역 기독교계 인사 350명의 지지 선언을 시작으로 전남·광주지역 지체장예인 3061명, 전남광주한동협회 200여명, 생활체육·스포츠·트레킹 동호회 300여명, 여수 돌산마을 주민 200여명, 김영록 전 전남도지사 지지자 모임 1000여 명이 김민석 후보 지지 선언에 참여했다.
광주 마용사연합회 150여명과 대한노인회 광주연합회 200여명, 무등산 상인 모임 100여명, 사단법인 남도의 빛 3000명, 사단법인 대혁신호남포럼 2000명, 포럼 사람과 사람들 300여명도 지지 선언에 동참했다. 지지 선언 인원은 짧은 기간에 1만명을 넘어섰다.
지지 선언 참여자들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전남·광주의 미래 발전을 바라는 지역민의 뜻을 모은 것”이라면서 “그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전남·광주가 새로운 성장 기회를 얻으려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발전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여당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완벽한 당정일치가 필요

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자들은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서 국정 운영을 함께 이끌고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는 김민석 후보가 당정 협력을 이끌 적임자다”며 “김 후보가 당 대표로 선출돼야 정부 정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전남·광주의 주요 현안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릴레이 지지 선언은 3일 오후 5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선택 김민석! 전남광주 당원 필승 결의대회’ 이후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대책본부는 개인과 단체, 법인 등에서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잇달아 밝히고 있어 구체적인 일정과 진행 방식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지역 당원과 지지자들이 참여하는 자발적인 거리 캠페인도 본격화된다.
대책본부는 릴레이 지지 선언은 단순한 후보 지지를 넘어,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지역발전 구상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달라는 지역사회의 요구가 표출되고 있다는 분석했다. 특히 ‘800조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대규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긴밀한 당정 협력과 강력한 정책 추진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전남광주 기초의회 의장에게 듣는다

“현장 소통 강화...군민 중심 의회 만들겠다”

이상주 신안군의회 의장

연구단체 활성화·정책 역량 강화 등 전문의회 구현
경제 활성화·취약층 지원 강화 등 생산적 의회 집중

“군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듣는 현장 중심의 소통 의회가 되겠다.”
이상주 제10대 신안군의회 의장은 최근 취임사에서 “군민 중심의 의정 활동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 현장 중심 소

통과 실효 있는 의회, 집행부와는 생산적 협치를 통해 군민 행복과 신안군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상주 의장은 “군민의 성원과 지지 속에 제10대 신안군의회가 출범한 데 대

해 감사하다”며 “군민이 보내준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더욱 낮은 자세로 군민의 뜻을 받드는 민의의 전당을 만들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또 “의회의 존재 이유는 군민이며 모든 의정활동의 중심에는 군민이 있어야 한다”며 “14개 읍·면을 직접 찾아 군민의 작은 목소리까지 귀담아듣고 이를 정책과 의정활동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군민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강화하고, 언제나 군민의 입장에서 고민하는 의

회가 되겠다는 의지와 함께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도 약속했다.
그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과 조례를 발굴하고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실력으로 평가받는 유능한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연구단체 활성화와 정책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전문의회를 구현해 군민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집행부와는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



를 위한 정책 지원에도 의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신안은 새로운 도전과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의회는 과거의 성과를 계승하고, 부족했던 점은 과감히 고쳐나가며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을 약속하겠다”며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해상풍력, 친환경 에너지, 문화·관광·복지 정책 등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의회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 집행부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군민 행복과 신안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겠다”며 “군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신안군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원 모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